

# 광주 올 상반기 주택매매량 28% '뚝'



광주지역 곳곳에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주택 매매는 끊기고 전월세 거래는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재개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한창인 광주 도심. <광주일보 자료사진>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전남 주택매매도 6.5% 줄어  
광주 아파트 재개발 급증에 전·월세 거래량 16.2% 상승

올해 상반기 광주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1년 전보다 27.7% 급감했다. 전남은 6.5% 줄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반기(1~6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31만 41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만7395건)과 최근 5년 평균(48만9373건)과 비교해 각 28.2%, 3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주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 2554건으로, 1년 전(1만7369건)보다 27.7% 감소했다. 5년 평균보다도 26%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042건, 서구 2482건, 남구 1792건, 북구 3890건, 광산구 3348건 등이었다. 이는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연도별 상반기 주택 매매거래는 2006년 1만6645건에서 2007년 1만6786건, 2008년 1만7291건, 2009년 1만6583건, 2010년 1만7401건 등으로 5년 간 1만6500~1만7400여건을 오르내리다가 2011년 2만 1506건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12년 1만4009건으로 34.9% 급감했고, 2013년 1만7781건, 2014년 1만6539건으로 다소 회복됐다가 2015년 2만180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6년 1만 3219건, 2017년 1만3220건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1만7369건이었다. 주택 매매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전·월세는 1만8819건으로 전년보다 16.2% 급증했다. 이는 광주지역 아파트 재개발이 급증하면서 주택매매는 줄고 전·월세는 크게 늘



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전남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 3542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6.5%, 5년 평균 대비 3.7%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1만 9315건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4만216건)은 1년 새 반토막(56.0%) 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14만2384건)의 감소율도

39.6%에 이르렀다. 지방(17만1724건)의 거래도 위축됐지만, 감소 폭은 14.9%로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19만8182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31.1% 감소했고,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11만5천926건)도 22.6% 위축됐다. 전·월세의 경우 상반기(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99만2945건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93만3986건)보다 6.3%, 5년 평균(86만4483건)보다 14.9% 많은 수준이다. 전국에서 거래된 전·월세 가운데 월세 비중은 40.4%로 작년 같은 기간(40.6%)보다 0.2%포인트 줄었다. 주택 매매거래량,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이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쾌적한 주거환경·입지에 반하다

광주 '중외공원 모아미래도' 오늘 분양

㈜모아종합건설은 고품격 아파트 브랜드인 '중외공원 모아미래도'의 주택 전시관을 19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228번지 일대에 지하 1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전용면적 68㎡와 81㎡ 총 508가구를 분양한다. 이 중 193가구가 일반 분양이다. 뛰어난 조망권과 우수한 개방감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최대 83m의 넉넉한 동간거리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쾌적함을 더했다. 전 세대 4베이(BAY), 팬트리 등으로 수납을 특화하는 혁신적 공간설계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입주인을 위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북카페 등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최근 극심한 미세먼지로 숲세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외공원 모아미래도는 주변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대형공원 프리미엄을 갖춰 쾌적한 주거 생활을 누리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

다. 특히 단지와 중외공원 산책로가 연결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광주 도심 접근성이 탁월하다. 호남고속도로 서광주IC를 이용한 광역 진출이 용이하고 단지 인근에 북문대로, 제2순환도로를 통해 중심 상업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또 광주도시철도 2호선 본촌산단역이 개통할 예정으로 광주 도심과의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양초·운암중·금호고 등 명문학교를 자랑한다. 광주시립미술관·국립광주박물관·문화예술회관·비엔날레 전시관 등 단지 앞에 조성된 중외공원 문화특권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운암 주공3단지 재건축과 중외공원 민간특례사업 개발로 6000여 세대의 대규모 신혼주거타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프리미엄 요소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 분양 전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외공원 모아미래도 주택전시관은 서구 상무자유로 27(치평동 889-5)에 마련됐다. 문의, 062-372-2001.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입찰 담합 업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강화 국토부, 화재·지진취약 건축물 불시점검

공정위, 입찰 부당 심사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 참

가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심각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공공사업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을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지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벌점이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벌점은 공정위 조치의 수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경고는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은 2.0점,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점이 부과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2일부터 전국 신축·건설현장 등

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부터 건축안전 불시점검을 전국 신축 건축물 1400건과 건축시공·자재제조 현장 400건에 대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시점검에 앞서 19일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을 상대로 건축안전 모니터링 설명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점검 건수를 전년 각각 700건과 230건 대비 약 2배로 늘리고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지난해 작년 불량 제조업체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 등 취약부문을 선정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하고,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LH, 영암·무안 비축토지 14필지 매각

오는 30일까지 입찰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영암·무안 비축토지 총 14필지(11만5000㎡)를 오는 30일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 매각 대상은 LH가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매입한 비축토지로, 영암군 자연녹지지역 토지(13필지)와 무안군 일반주거지역 토지(1필지)다. 영암지역 자연녹지 토지들은 삼호읍 남전리 대불산단 인근에 있으며, 영전·잡종지·임야 등 총 13필지다. 토지 매각 예정 가격은 1억300만~7억5300만원이다. 3.3㎡당 15만원가량이다. 해당 토지 인근에 영암, 해남 기업도

시 '솔라시도 삼호지구'가 추진되고 있다. 무안군 일로읍 월말리에 있는 토지 매각예정 가격은 20억원이다. 3.3㎡당 41만원이다. 대상 토지는 일부 도시계획도로에 저축을 받지만 일로읍 중심에 있어 소규모 주택 건설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 입찰 방식은 최고가격 입찰이며, 입찰신청 접수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입찰은 다음달 1일, 계약 체결은 다음달 12~13일이다. 문의,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또는 LH 광주전남본부 보상관리부 062-360-3309.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덕남동, 임야 급매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